

## 임플란트 시술시 심미성 증진을 고려한 연조직의 처치

서조영 교수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임플란트와 치아주위 연조직과의 조화로운 관계가 임플란트 처치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치열의 심미성은 협측 치은과 치간유두의 모양, 윤곽, 색조와 건강정도에 의해 상당히 결정된다. Dentogingival interface의 전체적 양상에 대한 주위 깊은 관찰이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임플란트 제작을 위해 선행되어야 한다.

개개치아는 인접치은과 동 떨어져서 심미성을 고려 할 수 없으므로 치은의 임상적 양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변연 치은은 산호빛 핑크색을 띠며 치경부를 둘러 싸고 있는 옷깃 모양의 치은으로 좁고 매끄러워야 하며, 부착치은은 변연치은에서 연속되는 부분으로 단단하고 탄력성이 있으며 하부 치조골에 견고히 부착되어 있고 충분한 양의 폭을 유지하면서 점막상태를 띄고 있어야 한다. 치간유두는 변연치은중 치아와 치아사이의 삼각형의 치간공극을 채우고 있는 피라밋 형태의 치은을 말하며 변연치은과 부착치은과는 달리 표면이 각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자극들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한다. 치간유두의 외형은 치아간의 접촉관계, 인접하는 치아면의 폭경, 치간골의 상실 정도에 의해 좌우된다.

임플란트 식립 후 지대주 연결시 조직 천공술(tissue punch technique)이나 전층 판막술(full-thickness flap)을 주로 이용하였으나 이러한 방법을 적용해서는 정상적인 치간유두의 형태를 얻기는 어려웠다. 지난 10년 동안 상실된 치아주위조직의 형태를 재생하는 능력은 향상되었지만 많은 예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심미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다수의 외과적 방법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방법에서 심미적인 결과를 얻는 데에 시간이 더 걸리고 예기치 않은 합병증이 위험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또한 조직을 치관부 방향으로 재생시키거나 증식시키는 것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그러나 상실된 조직을 치관부에서 대체해야 할 필요가 흔히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치간 유두의 외모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개선된 외과적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임플란트 식립 후 이차 수술시 치은과 임플란트의 심미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치간유두와 같은 형태를 얻기 위한 연조직의 처치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 약력

1984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1984-1990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조교

1991. 8. 경북대학교 대학원 치의학 박사

1996-1998 미국 펜실바니아 치과대학 객원 교수

1994-1996, 1998-현재 경북대학 병원 치주과 과장

1990-현재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